

# 구약논찬

제14권 4호(통권 30집) 2008년 12월 31일

김 재구(협성대 강사) 여성 아브라함들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후대의 사람들에게서 신앙의 본으로 반드시 재현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의 며느리인 동족 리브가의 삶 속에 농축되어져 나타나고, 심지어 이방인 모압 여인 룻의 삶에서도 역력히 드러나며, 이 두 사람은 여성 아브라함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된다.

Kim, Jae-Gu

The Female Abrahams

---

# 여성 아브라함들

---

김 재구 | 협성대 강사

## 1. 들어가는 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인류사가 그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에 기인한 것이다. 그의 순종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신앙의 후손들에게 지극히 중요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지시해 주는 나침반과도 같은 역할을 하며, 그들에게 공통의 정신과 감정, 뜻과 목적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sup>1)</sup> 좀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심지어 하나님의 자기 소개 방식까지 새롭게 한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창 26: 24).<sup>2)</sup> 이와 같이 아브라함

---

1) James Muilenburg, “Abraham and the Nations: Blessing and World History,” *Interpretation* 19 (1965), 387-398쪽.

2) N. Sarna, *Genesis*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396-397쪽;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18-50* (NICOT), (Grand Rapids, Michigan: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5), 205쪽. 이들은 아브라함 전에는 “나는 네 아버지 데라의 하나님이다”와 같은 표현이 부재한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라엘 종교사에

은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새로운 시작을 제공해 준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의 후손들의 삶 속에서도 재현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 소 논문은 남성이 중심이 된 사회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성들에게 어떻게 반영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아브라함 상을 소유한 여성들이 열어 가는 역사의 특징을 조사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둔다. 남성 위주의 사회상과 권위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불평을 상쇄시킬 수는 없겠지만, 비록 소수일지라도 명백한 아브라함 상을 간직한 믿음의 여성들의 역할은 시대를 초월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도전을 주기에 충분할 것 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두 명의 여성이 소개될 것이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족으로 인정받는 계열에서 탄생된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아브라함 계열임에도 이방인으로 취급되는 사람이다. 이 두 여인들의 삶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들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서 성서간에 언어적인 ‘암시’(allusion), ‘인용’(quotation), ‘공명’(echo), ‘모방’(imitation), ‘풍자’(parody), ‘차용’(borrowing) 등을 비교하고 대조함으로써 본문의 신학적인 의미를 밝히는 ‘성서간 대화법’(Intertextuality; Inner-Biblical Interpretation)을 적용한다. 이 문학적 성서 해석법은 차일즈(B. S. Childs)의 ‘경계적 접근법’ 이후로 계속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이제는 방대한 양의 참고문헌을 소유하고 있다.<sup>3)</sup> 특히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표현들과 비교 대상인 두 여인의 삶 속에 나타난 신앙의 핵심적인 표현들의 밀접한 연관성을 언어적, 주제적인 면에서 비교하고 분석하여 위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먼저 비교를 위해 아브라함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순서일 것이다.

## 2.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 1) 아브라함의 순종

---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라 본다.

3) Patricia Tull, "Intertextuality and the Hebrew Scriptures," *Currents in Research: Biblical Studies* 8 (2000), 59-90쪽. 특히 이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은 이 방법론의 발전을 말해주기 충분하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은 두 번의 중요한 부르심으로 둘러싸서 그 시작(창 12장)과 끝(창 22장)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수미쌍관(首尾雙關 *inclusio*)을 이루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는, 첫째로, 출발에 대한 하나님의 동일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다: 𐤀𐤂-𐤀𐤁(레크-레카/가라 창 12: 1; 22: 2). 특이하게도 이 명령형은 히브리 성경 전체 속에서 오직 아브라함 이야기에만 나타나며, 그의 이야기 중에서도 오직 이 두 문맥 속에서만 나타나는 희귀한 표현이다. 이것은 이 두 사건의 밀접한 연관성을 강조해 주는 효과를 더하고 있다.

둘째로, 그 출발을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이 동일한 3단계로 주어지며, 그 강도를 점점 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작은 '본토, 친척, 아버 집'(창 12: 1)이고 그 끝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창 22: 2)이다. 즉, 부모와의 결별과 자식과의 결별을 행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상징하는 과거와의 전적인 단절이며, 또한 부모와의 단절 뒤에 아들이 상징하는 미래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의미한다.<sup>4)</sup> 이 잔혹하게 보이는 명령에 똑같은 순종으로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결단이 나타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좃아갔고'(𐤀𐤁𐤁𐤀 할라크)"(창 12: 4)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𐤀𐤁𐤁𐤀 할라크)"(창 22: 3). 아브라함의 특징은 명령이 떨어지면 단 한 마디의 질문도 없이 모든 것을 신속히 준비하여 그 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 𐤀𐤁𐤁𐤀(할라크/가다)한다.

셋째로, 두 출발 모두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은 어떤 미지의 장소로 가라고 지시하고 있다. 처음에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 12: 1)고 하시고, 그 다음은 "내가 네게 지시할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창 22: 2)고 명령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정확하고 분명한 것을 보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 것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넷째로, 두 사건에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증표로 제단을 쌓는다. 벤엘(창 12: 8)에 쌓고, 그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창 22: 9)에 쌓는다. 마지막으로, 두 번의 떠남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그 출발에서 받았

4) G. von Rad, *Genesis: A Comment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72), 159, 239쪽; Benno Jacob, *The First Book of the Bible: Genesis*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1974), 143쪽; Gary A. Rendsburg, *The Redaction of Genesis* (Indiana: Eisenbrauns, 1986), 31쪽.

던 동일한 축복의 확증으로 마감된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 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창 22: 16-18; 12: 2-3절과 비교해 보라).

이 비교를 통해서 유대인 신학자 사르나(N. M. Sarna)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창 12: 1-9)과 두 번째 부르심(창 22: 1-19)에 나타난 문학적 유사성들을 조사하여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토라(The Torah)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 이러한 문학적인 구조를 통해 아브라함의 영적인 오디세이(spiritual odyssey) 여정의 이야기를 감싸기 위해 고대의 아케다 이야기를 활용한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한 충성심으로만 완성되어지며, 그리고 결국은 영광스러운 후손의 약속으로 그 결말에 이르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포괄하고 있다.<sup>5)</sup>

이 두 부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완전한 순종과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똑같은 순종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이 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정말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러한 철저한 순종은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전의 인물이나 사건들 속에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브라함 전에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 2) 아브라함 - 과거 세대의 실패를 극복

아담과 하와의 좋은 시작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אֵלֹהִים בִּרְאֵתוֹ טוֹב מְאֹד, 창 1: 31)라는 큰 격찬으로 시작된 출발임에도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으로 끝을 맺고 말았다. 그리고

5) Nahum M. Sarna, *Understanding Genesis* (New York: Schocken Books, 1970), 161쪽.

결국은 저주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또 ‘당대에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의인’(창 6: 9)이라는 칭찬을 받으며 새 창조의 시작을 열어갔던 노아도 그의 실수로 인해 함을 저주함으로 저주받은 땅 위에 또 다시 저주를 퍼붓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이상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그 삶의 시작과 끝을 장식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응답은 인류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왜냐하면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에 기회를 부여받은 노아를 통해서도 결코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전에 기회를 부여받았던 두 인물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연결성을 가지면서 그들의 실패를 강조하고 있다.<sup>6)</sup>

아담 이야기(1: 1 - 6: 8)	노아 이야기(6: 9 - 11: 26)
혼돈, 창조(1: 1 - 3: 24)	혼돈, 창조(6: 9 - 9: 17)
아담의 아들들(4: 1-16)	노아의 아들들(9: 18-29)
아담의 후손들 계보(4: 17 - 5: 32)	노아의 후손들 계보(10: 1-32)
인간의 교만 - 네피림(6: 1-7)	인간의 교만 - 바벨탑(11: 1-9)
선택된 노아(6: 8)	선택된 아브람(11: 10-26)
새로운 기회: 창조의 파괴와 새 창조	새로운 기회: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간

우리가 원 역사라고 부르는 창 1 - 11장의 이야기 군 속에는 이렇게 커다란 실패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족장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이러한 실패와 악의 흐름을 끊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기 위한 기다림의 표현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정체감을 인식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을 끊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람이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어떤 여건 속에서도 아무 질문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새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

6) B. W. Anderson, "From Analysis to Synthesis: The Interpretation of Genesis 1-11," *JBL* 97 (1978), 23-39쪽.

브라함을 그 먼 곳으로부터 불러 내셨다. 아담과 노아가 이루어내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 받은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그 음성  
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질문 없이 출발한  
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만 새 역사가 열린다는 것을 창세기는 여러  
이야기들의 전개를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출  
발할 때 받은 약속이 모리아 산 위에서 반복되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약  
속이 이 땅 위에서 실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향한 전폭적  
인 순종과 헌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출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새로운 창조의 시발점이  
된다. 하지만 노아 때처럼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순종의 사람을 부르셔서 창조의 이상을 실현하  
게 하신다.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부름 속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다. 7)

천지창조 (1: 1 - 2: 3)		아브라함을 부르심 (12: 1-4)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바벨 사건 이후 혼돈(언어의 혼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ㄱ3 :1 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ㄱ1 :12 ㄴ)
사 람 에 대 한 창 조	남자와 여자	아브람과 사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1: 28)	네게 복을 주어(12: 2)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땅을 정복하라	네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기,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 다 스리게 하자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1: 30)		이에 여호와와의 말씀을 좇아갔고(12: 4)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종을 보여주고 있  
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역시 창조와 동일한 순종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떠한 불가능성을 담고 있더라  
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7) W. J. Dumbrell, *Covenant & Creation: An Old Testament Covenantal Theology* (Devon: Paternoster Press, 1984), 61쪽;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BC), (Waco, Texas: Word Books, 1978), 111쪽; Thomas L. Brodie, *Genesis as Dialogue: A Literary, Historical, & theological Comment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210-11쪽.

를 이루어 가는 삶이라는 것이다.

### 3) 아브라함 - 미래 세대를 위한 역할 모델(Role Model)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의 순종적인 삶은 이제 후손들이 따라야 할 모형이 된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계획하신 일이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창 18: 18-19).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 받은 사건은 새로운 상징으로 등장한다. ‘갈대아’라는 말은 **קַדְמֵי** (카스딤/갈대아인)으로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역사 서술에서 특이하게도 아브라함 이야기와 열왕기하의 유다의 멸망 이야기에만 나타나는 용어이다(창 11: 28, 31; 15: 7; 왕하 24: 2; 25: 4, 45, 10, 13, 14, 25, 26). 이러한 연관 관계는 분명 역사의 마지막을 다시금 시작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음을 직감해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을 바벨론의 갈대아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은 약 1,500년 뒤에 동일한 장소에 갇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실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sup>8)</sup> 밴 시터스(Van Seters)는 창 15장 7절의 갈대아 우르에서의 부르심과 출 20장 2절 애굽 땅에서의 구원의 연관 관계를 밝히면서, 아브라함의 우르에서의 탈출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제 2의 출애굽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는 출애굽의 선언이 원형이었다면,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의 이미지가 새롭게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것이라 주장한다.<sup>9)</sup> 그리고 이 두 사건에 대한 신학적인 재해석은 (출애굽 사건을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으로 승화시킨) 예레미야서에 연합되어 잘 나타나 있다(렘 16: 14-15; 23: 7-8).

이 주장은 창 15장 13, 16절에 나타난 시간적인 모순에도 그대로 드

8) David N. Freedman, "Pentateuch," (IDB 3), (Nashville: Abingdon Press 1962), 713쪽; idem, *The Unity of the Bibl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3), 9쪽; Brodie, *읽기*, 44쪽.

9) John van Seters, "Confessional Reformulation in the Exilic Period," *VT* 22 (1972), 455쪽; 참조, R. N. Whybray, *The Making of the Pentateuch: A Methodological Study* (JSOTSup. 5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7), 239쪽.

러난다. 애굽에서의 고생이 400년 동안이라고 서술하고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사대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예언이 주어진다. 이 사대는 400년이라는 거대한 숫자보다는 오히려 예레미야가 주창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기간과 잘 맞아 떨어진다(렘 29: 7). 그리고 이 기간은 아내를 취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해 자녀를 낳는 기간에 해당된다(렘 29: 4-6). 즉 이 70년 기간 동안 3-4대의 세대가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죄를 갚되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선언에 서처럼 죄악을 사하는 기간과 맞아 떨어진다(출 20: 5; 34: 7; 민 14: 18; 신 5: 9). 이는 원래의 출애굽 사건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미래를 향한 희망적인 약속이 되어 새로운 출애굽으로 재형성되었을 것이다.<sup>10)</sup>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이야기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후손들에게는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sup>11)</sup> 모벌리(R. W. L. Moberly)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전적인 순종을 믿음의 최고의 본으로 여기며, 또한 토라적으로 형성된 순종의 모델로 강조한다.<sup>12)</sup>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시내 산에서 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그 법의 모든 것을 다 준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 명백하게 증명되어진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창 26: 4-5).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희망을 내포하고 있으며,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거하기를 갈망하는 자, 그들은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재현해야만 한다. 기꺼이 그 길을 걷기를 희망하는

10) Michael Fishbane, "The 'Exodus' Motif/The Paradigm of Historical Renewal," (ed.), *Text and Texture: Close Reading of Selected Biblical Texts* (New York: Schocken Books, 1979), 130쪽.

11)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1-17* (NICOT), (Grand Rapids, Michigan: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11쪽; G. W. Coats, "The God of Death: Power and Obedience in the Primeval History," *Interpretation* 29 (1975), 227-239쪽.

12) R. W. L. Moberly, *Genesis 12-5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42, 49쪽.

사람을 통해 새로운 역사는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다. 여기 그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는 여성들이 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새 이스라엘을 꿈꾸고 있다.

### 3. 리브가 - 동족 여성 아브라함

리브가가 처음으로 성경의 무대 속에 등장하는 것은 그녀의 이름이 나타나는 나홀의 족보이다(창 22: 20-24).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으로 리브가의 할아버지이다. 특이하게도 이 족보는 나홀의 아들들을 나열하는 명단임에도 손녀인 리브가는 유일하게 남성들의 이름 속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즉 삼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녀가 등장하는 시점이 중요하다. 첫 번째 여 족장(matriarch)인 사라의 죽음이 보도되기 바로 전(창 23: 1-2)에 리브가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4장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가 67절에 걸쳐서 길게 나열되고, 그 다음 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도하고 있다(창 25: 7-9).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는 첫 번째 족장 부부의 죽음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열의 특성을 파악한 제이콥(B. Jacob)은 리브가는 분명 사라의 대리인이며 후계자(substitute and successor)라고 본다.<sup>13)</sup> 이 주장은 “이삭이 리브가를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모친이 죽은 후에 위로를 얻었다”(창 24: 67)고 전하는 것에서 더욱 분명해 진다.

리브가가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열어간 여 족장 사라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의미가 깊다. 그 후계자의 자리는 분명 가볍게 연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리브가라는 여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쉽게 파악될 수 있다. 창 24장에 나타나는 리브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의 여인이다.

첫 번째, 리브가는 본토, 친척, 아버의 집을 떠나야 한다. 창 24장에는 אַרְיִן (에레쓰/고향)과 מוֹלָדָת (모레테트/족속), בֵּית-אָב (벧-아브/아버지

13) Jacob, 윗글, 149, 163쪽; 참조, Lieve Teugels, "'A Strong Woman, Who Can Find?' A Study of Characterization in Genesis 24, with Some Perspectives on the General Presentation of Isaac and Rebekah in the Genesis Narratives," *JSOT* 63 (1994), 92쪽; Karel Deurloo, "The Way of Abraham: Routes and Localities as Narrative Data in Gen. 11:27-25:11," Martin Kessler(ed.), *Voices From Amsterdam: A Modern Tradition of Reading Biblical Narrative* (Georgia: Scholars Press, 1994), 109-111쪽.

집)과 מוֹלֶדֶת-אָבִי(모레데트 에레쯔/본토) 등의 말이 넘쳐난다. 그러나 그 곳은 아브라함이 떠나온 장소이며,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땅이다.<sup>14)</sup> 결국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나야 할 곳이 기도 하다(7-8절). 창 24장 28절에는 리브가와 관련해서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이 아닌 ‘어미의 집’(בֵּית-אִמִּי 베이트-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sup>15)</sup> 그러나 안정을 깨고 떠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두 번째, 리브가는 그 땅에 가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결혼하게 될 이삭을 본 적도 없다. 즉, 보지도 못한 사람과 가본 적도 없는 장소를 향해 출발하는 것이다.<sup>16)</sup> 세 번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축복의 약속을 받고 출발한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창 24: 60).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브가는 자신을 데리고 급박하게 떠나려는 아브라함의 종을 가족들이 만류하며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의 질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가겠나이다”(וְלֵאמֹר 엘레크)라고 대답한다(창 24: 58; 비교 창 12: 4 - 아브라함).

이와 같은 특징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델이 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요소들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는 ‘축복’(בְּרָכָה 베라카), 혹은 ‘축복하다’(בָּרַךְ 바라크)가 넘쳐난다(2번 - 12: 2; 3번 - 12: 3). 마찬가지로 리브가의 이야기 속에도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의 축복과 함께 수 차례 강조된다(창 24: 1, 27, 31, 35, 48, 60). 그리고 리브가가 이 축복을 연결시킬 바로 그 여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순종을 보였을 때, 여호와께서 하신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창 22: 17b-18a)라는 약속은 위에 인용한 창 24장 60절의 리브가에 대한 축복 선언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14) 창 12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אֶרֶץ 에레쯔) 친척(מֹלֶדֶת 모레데트) 아버 집(בֵּית-אָבִי 베이트-아브)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  
 15) Hamilton, 윗글, 152쪽. 해밀턴은 ‘어미의 집’이란 표현이 다른 곳에서 아버의 죽음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모계 세습의 한 증거일수도 있다고 본다(룻 1: 8; 아 8: 2).  
 16) Teugels, 윗글, 97-98쪽. 토이겔스는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반복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삭이 직접 가지 않고 종이 대리인으로 간 것도 아브라함에게서처럼 전적이며 무조건적인 리브가의 믿음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더욱 그렇다.<sup>17)</sup> 이것은 리브가의 결단의 출발을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에서의 신앙과 연결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리브가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רִבְקָה(리브카/리브가)가 축복을 뜻하는 בְּרָכָה(베라카/축복)와 그 발음에서 유사한 자음을 다 내포하고 있다는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천만 인의 어머니’(창 24: 60)가 되라는 리브가에 대한 축복 또한 ‘천만 인’의 히브리어 발음이 רִבְבָנָה(레바바/천만 인)로 리브가의 이름과 축복이라는 단어들의 유사한 발음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웬함은 이러한 몇몇 중요한 대칭을 파악한 후에 리브가를 여성 아브라함(a female Abraham)이라고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sup>18)</sup>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결코 그의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 축복은 또 다른 축복의 한 쌍에 의해 그대로 연결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이삭이 그 축복을 이어받고(창 24: 35-36),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을 간직한 여성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완성시키려고 약속의 땅으로 오고 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을 완성시킨 것처럼 창 24장의 리브가와 이삭에 대한 여러 표현들도 역시 창조의 이상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다. 다음은 브로디(Brodie)가 바라본 창 1-2장과 창 24장의 관련성이다.

창 24장에 충만해 있는 전체적인 조화의 느낌은 처음 창조(창 1: 1 - 2: 4a)의 그것과 유사하다. 모든 것이 지고의 통제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느낌은 종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에서 그 메아리를 발견한다. 더 상세한 유사점들이 존재하는데, 그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우주적인 호소(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창 24: 3, 6), 축복에 대한 강조(그리고 축복 받는 것 창 24: 1, 27, 31, 34, 48, 60; 25: 11), 남녀의 관계에 대한 부각, 좋은 것에 대한 강조 ‘모든 좋은 것’(창 24: 10); ‘좋은 늙은 나이’(창 25: 8); 보기에 ‘심히 아리따운’ 리브가(창 24: 16), 그리고 좋은 일 하기를 ‘마치고’(כָּלָה/칼라)(리브가에 의해 창 24: 19-22; 참조 창 2: 1).<sup>19)</sup>

17) Teugels, 빛글, 102쪽.

18)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WBC), (Waco, Texas: Word Books, 1994), 138쪽.

19) Brodie, 빛글, 279쪽.

아브라함과 사라가 천지 창조 의 이상을 그대로 실현하여 전적인 순종으로 이 땅에 저주가 아닌 축복이 회복되는 길을 열어갔다면, 이제 리브가와 이삭은 그 뒤를 잇는 새로운 한 쌍이 된다. 그리고 축복뿐만 아니라 **רַבָּה בְּיָמֶיהָ**(토브 메오드/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 1: 31)라는 리브가 또한 리브가의 모습인 **רַבָּה ... תְּבַט**(토바트 ... 메오드/심히 아름답다)와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 회복되어 나타남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회복에 있어서 리브가의 역할은 격찬할만하다. 리브가의 신앙의 위대함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섭리가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 펼쳐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미지의 세계로의 여정을 떠난다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숨은 섭리 앞에 결단하고 출발하는 신앙은 그 후대의 여인들은 물론이고, 남성들에게도 강한 도전을 주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이 리브가는 행동으로 말하고 있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일어나 떠나야 한다. 자신이 비록 아브라함과 동족(창 24: 40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에 주저앉아 안정을 추구하는 자는 결코 축복의 후손인 이삭과 연합할 수 없다.

이 리브가의 이야기는 포로기와 포로 후기를 살아가는 공동체의 여성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었을까? 그것은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소규모라는 것에서 이미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출발하는 그 여성을 통해 새 시대가 열릴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리브가는 삶으로 이렇게 말한다: “가라! 이 시대의 리브가여 너희가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갈 주역이며 이 시대의 여성 아브라함이다.”

#### 4. 룯 - 이방인 여성 아브라함

룯기는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된다. 먼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엄격한 동족간의 결혼법에 대한 저항 작품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또한 시형제 결혼(levirate marriage)법의 시행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다윗의 경건한 선조를 칭

송하기 위한 작품일 수도 있으며, 혹은 룯을 모압 여인에서 완전히 유대인으로 귀화한 영웅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다윗 선조의 정통성을 옹호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인 색채를 벗어나 젊은 여인의 신실함에서 기인한 영웅적인 신앙을 그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sup>20)</sup> 하지만 이 중에 어느 한 가지 만을 지목하여 룯기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룯기 속에는 이 모든 요소들이 고루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용을 분석하며 더 극적인 강조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룯기에는 두 대칭 되는 개념이 등장하며 전반부와 후반부의 사건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 대칭들은 다음과 같다: 흥년과 풍요, 피난과 귀향, 고립과 유대, 삶과 죽음, 그리고 징계와 보상.<sup>21)</sup> 전반부는 나오미라는 여인의 삶이 여호와와 그의 손이 치신 징계의 모습인 **אִתָּנָה**(마라/쓰다)의 삶의 형태를 보인다(룯 1: 13, 20). 그리고 자신을 **נַחֲמִי**(나오미/나의 기쁨)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다(룯 1: 20-21). 그러나 후반부는 나오미의 삶이 어느 누가 보기에든 **בָּרָק**(바라크/송축하다, 복 주다)할 삶으로 회복된 반전을 강조하고 있다(룯 4: 14-15).<sup>22)</sup>

누가 이 메말라 버린 유대 여인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켜 놓았는가? 물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도록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바로 룯이라는 여인이다.<sup>23)</sup> 룯의 삶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인상적인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할 만한 내용이 아님을 직감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룯은 유대 사람이 아니며 모압 여인이다. 이 사실은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되고 있다(룯 1: 22; 2: 2, 6, 21; 4: 5, 10; 참조, 2: 10). 신 23장 3절

20) 이러한 다양한 견해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하라: B.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563-64쪽; Anthony Phillips, "The Book of Ruth—Deception and Shame," *JUS* 37 (1987), 2-3쪽. 그리고 시형제 결혼에 대해서 창 38장의 다말과 룯의 비교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김 창주, "시형제 결혼의 신학적 의미: 다말과 룯의 경우," 「구약논단」 제 28집 (2008년 6월), 10-28쪽.

21) J. M. Sasson, *Ruth: A New Translation with a Philological Commentary and a Formalist-Folklorist Interpret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9), 23쪽.

22) David A. Dorsey,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Old Testament: A Commentary on Genesis-Malachi*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1999), 121-128쪽.

23) W. S. Prinsloo,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uth," *VT* 30 (1980), 334쪽.

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못을 박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 롯은 당당히 다윗의 증조모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모세의 법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인가? 아니면 이 법에도 유연성이 적용된다는 것인가? 분명 전자는 아닐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은 폐기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제 모세의 법이 언제 그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롯을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인종적 배타성을 풀어낼 수 있는 해결점을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롯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부각된다.

첫째, 시어머니 나오미가 **בֵּית-אֵם**(벳-엠/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간곡하게 권하지만(롯 1: 8), 롯은 자신의 **אָבִי וְאִמִּי**(아브 웨엠/아버지와 어머니)과 **מֹרְדֵיַם**(모레데트/친척)를 떠난다(롯 2: 11). 여기서 ‘떠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에 **בָּרַח**(아자브/버리다, 팽개치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롯이 어떤 결심으로 나오미를 따랐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sup>24)</sup>

둘째, 전에 알지 못하던 장소인 **אֶרֶץ יְהוּדָה**(에레쓰 예후다/유다 땅)로, 그리고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갔다(**הָלַךְ** 할라크/가다; 롯 1: 7, 19; 2: 11).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나오미의 말처럼 희망적인 것은 전혀 없다(롯 1: 10-13). 단지 또 다른 쓰디쓴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절망은 나오미에게도 롯에게도 아들이 없으며, 그 땅으로 간다 해도 이러한 상황은 전혀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단언으로 나오미의 입을 통해 절규에 가깝게 들려진다(비교 아브라함의 상태, 창 11: 30). 그러나 롯이 그 땅으로 가야한다는 신념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단지 죽음만이 그 길을 막을 수 있을 뿐이다(롯 1: 17).

셋째, 롯은 어떠한 축복의 약속도 받지 못했지만 그 길을 간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음을 이야기의 전개를 통해 분명히 살펴볼 수 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

24) E. Gerstenberger, "בָּרַח 'āzab; **עֲזָבוֹנִים** 'izz'ōnīm," G. J. Botterweck, H. Ringgren & H.-J. Fabry(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X), (Grand Rapids, Michigan: W. B. Eerdmans Publishing Co., 1999), 586쪽. 게르스텐버거는 이 단어의 의미는 완전히 새로운 상태를 위해 전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롯기에서는 시어머니를 따르기 위해 모든 안전(all security)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나님의 백성을 따르는 자에게 내정된 축복이다.

넷째, 자신의 민족인 모압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간곡한 호소에도 룯은 단호하게 대답한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도 가겠습니다”(ᄃᄃᄃ ᄃᄃᄃ ᄃᄃᄃ 1: 16). 이 응답은 예전에 리브가가 이삭과의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 어미의 집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떠날 때의 그 응답과 완전히 일치하며(창 24: 58), 아브라함의 결단 또한 그대로 보여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은 룯을 “천만 인의 어머니가 되라”는 축복을 받은 또 다른 리브가라고 부를만하며, 나아가서는 복의 근원이 되는 또한 명의 여성 아브라함으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이 보여 주었던 신앙의 결단이 룯에게서도 그대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의 유비에서 한 가지 더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이방 신과의 관련이다.(수 24: 2b-3a).

아브라함이 강(유프라테스)을 건너며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모든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와 음성을 좇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이제 룯도 동일하게 강(요단)을 건너며 자신의 백성은 물론이요 섬기던 신까지도 버리고 나오미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든다(룯 1: 15-16). 아브라함의 출발이 복을 가져오는 길이 되었다면, 이런 룯의 결단을 통해 나오미의 삶에 ᄃᄃᄃ(바라크/복 주다)라는 말이 쏟아지기 시작한다(룯 2: 19, 20; 4: 14; 참조, 2: 4; 3: 10). 결국, 또 다른 여성 아브라함 룯을 통해 그 주변이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말은 리브가와 같이 행복한 결혼의 연합으로 장식된다.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이다.

신명기의 결혼에 관한 법에서 볼 때, 이방인과의 결혼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잠식한다는 것이다(신 7: 1-4; 수 23: 12-13).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의 신앙의 인물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예는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방향을 다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인 면에서 유다의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탄생시킨 가나안 여인 다말(창 38장),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은 이집트의 온 제 사장의 딸인 아스낫(창 41: 51-52),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 살몬과 결혼한 것으로 보이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들 수 있다(마 1: 5). 이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결코 잠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세가 결혼했다는 구스

여인도 역시 어떠한 악도 가하지 않았다(민 12: 1). 그리고 다윗도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야가와 결혼해 압살롬과 다말을 낳았다(대상 3: 2). 압살롬이 이방 여인의 아들이라 푸대접을 받은 적은 없다. 또한 신명기 법은 포로로 잡혀온 여인들과의 결혼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신 21: 10-14).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솔로몬의 수많은 이방의 처첩들, 그리고 바알 신앙의 온상인 시돈 땅에서 온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은 이스라엘 신앙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원흉으로 드러난다. 이와 같이 이방인과의 결혼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그 정당성은 그 결과를 통해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모압 여인인 룻이 어떻게 다윗의 증조모가 될 수 있었는가? 그 해답은 이미 주어져 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यो 신앙의 결단이다. 아무리 에스라-느헤미야 시대에 결혼 법에 대한 법령이 삼엄하고 엄격한 배타적 민족주의가 팽배해 있을지라도 룻과 같은 여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즉 룻과 같은 여성 아브라함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모진 배타성이 오히려 더 든든한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 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었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느 13: 1-3).

이것은 신 23장 3-6절까지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정체성의 확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25)</sup> 그러나 이 두 내용 모두 룻에게는 오히려 그 반대의 칭송이 주어져야 함을 살펴볼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을 양식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룻의 선조들과는 반대로 룻은 자신의 삶 전체를 헌신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해 이스

25) 포로기를 거치며 형성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비전을 신명기 역사서와 예언서들 속에서 면밀히 검토하려면 다음을 참고하라. 한 동구,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비전," 「구약논단」 제 29집 (2008년 9월), 10-30쪽.

라엘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한다(룻 2: 5-7). 그리고 저주로 쓰디쓴 삶을 사는 이스라엘인 나오미를 복된 삶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 역할을 한다. 이것은 룯이라는 한 이방 여인이 보여준 아브라함 상이 한 가정의 운명을 뒤바꾸고, 나아가서는 룯기의 결말에 나오는 족보가 보여주듯 다윗 왕조를 통해 선택된 백성의 운명까지도 바꾸어 놓았음을 증거하고 있다.<sup>26)</sup> 그러므로 배타성을 부르짖는 법들조차도 결국은 이방인과의 결혼 불가능성이 아닌 가능성의 길을 열어놓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룯은 이미 결혼한 이방 여성들에게 그리고 결혼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삶으로 말한다: “가라! 이 시대의 이방의 룯이여 네 백성과 네 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생명이 다할 때까지 따르는 여성 아브라함이 되라!”<sup>27)</sup>

#### 4. 배타성(exclusivism)인가 수용성(inclusivism)인가?

리브가는 동족이다. 그러나 룯은 이방 여인이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은 리브가와 룯이 받은 축복의 말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찌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찌어다(창 24: 60).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룻 2: 12).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세대이다. 그는 가나안 땅을 가 본

26) Dorsey, 윗글, 128쪽; Prinsloo, 윗글, 341쪽.

27) Phillips, 윗글, 16-17쪽. 필립스는 룯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법으로 여기는 이방여인을 통해 ‘속임과 수치’(deception and shame)라는 방법으로 일침을 가하는 내용으로 본다. John F. Craghan, *Love and Thunder: A Spirituality of the Old Testament*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70), 201, 208쪽. 크래간은 룯과 같은 여성 리더들(Esther, Judith)은 남성들이 죽은 후에 리더십을 취하여 남성들을 자극하여 그들이 행동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예, 보아스가 시형제 결혼법을 지키게 한다). 이것은 족보의 마지막에 거론된 다윗과 그 왕조가 걸어가야 할 길도 보이고 있다.

적이 없다. 리브가나 롯 모두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으로 가나안 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성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의 땅으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왔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연합하기 위한 것이었다. 에스라서는 그 이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스 6: 21).

이 구절은 리브가와 롯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인종적-신앙적인 배타성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수용성 또한 열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주석가들은 '스스로 이방 사람과 구별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proselytes)로 본다(참조, 대하 6: 32-33).<sup>28)</sup> 만약 롯기가 에스라-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에 항의하는 것이라면, 롯의 행동이나 믿음은 더욱 완화된 모습으로 비쳐져야만 한다. 그러나 롯의 경우는 너무나 강한 이스라엘적인 신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항의라기보다는 오히려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용의 자격 조건을 보여주는 인상이 더 강해 보인다. 에스라-느헤미야서의 고민은 이방인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엄격한 율법 준수이다.<sup>29)</sup> 롯은 그 어느 이스라엘 남자들보다 율법 준수에 더 열심이었다. 결국 배타성과 수용성은 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면서 더 강한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준다. 여기에 아브라함 상이 그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 5. 나가는 말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의 신앙은 늘 후손들의 삶 속에서 살아나야만 한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동족에게는 올바른 정체성을 이방인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주는 길을 열어

28) F. C. Fensham, *The Books of Ezra and Nehemiah* (NICOT), (Grand Rapids, Michigan: W. B. Eerdmans Publishing Co., 1982), 95-96쪽; H. G. M. Williamson, *Ezra, Nehemiah* (WBC), (Waco, Texas: Word Books, 1985), 85쪽.

29) Williamson, 윗글, 1쪽(Introduction의 로마 숫자); Mark A. Throntveit, *Ezra-Nehemiah* (Interpretati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11쪽.

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명령에 응답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로 한 마디의 질문도 없이 출발하는 결단을 실행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제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실현하는 사람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새로운 아브라함의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리브가는 첫 번째 여성 아브라함이라는 칭호를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족이기에 동족의 여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과감하게 자신처럼 받을 때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외지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다운 삶으로 선언하고 있다.

룻의 삶은 이방 여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강조한다. 그것은 그들의 신과 부모를 버리는 것이며, 그들의 땅을 잇는 것이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실행하는 자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 아브라함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복이 그 가정에 실현되고 나아가서는 (다윗)왕조를 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까지도 뒤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비교는 인종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와 룻이 함께 공존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포로 후기 이스라엘이 인종적-신앙적인 배타성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을 향한 수용성 또한 열려져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 6. 참고문헌

김 창주, “시형제 결혼의 신학적인 의미: 다말과 룻의 경우,” 「구약논단」 제 28집 (2008년 6월), 10-28쪽.

한 동구,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비전,” 「구약논단」 제 29집 (2008년 9월), 10-30쪽.

Anderson, B. W., “From Analysis to Synthesis: The Interpretation of Genesis 1-11,” *JBL* 97 (1978), 23-39쪽.

Brodie, Th. L., *Genesis as Dialogue: A Literary, Historical, & theological Comm-*

- t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Childs, B. 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 Coats, G. W., "The God of Death: Power and Obedience in the Primeval History," *Interpretation* 29 (1975), 227-239쪽.
- Craghan, J. F., *Love and Thunder: A Spirituality of the Old Testament*,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70).
- Deurloo, K., "The Way of Abraham: Routes and Localities as Narrative Data in Gen. 11:27-25:11," Martin Kessler(ed.), *Voices From Amsterdam: A Modern Tradition of Reading Biblical Narrative*, (Georgia: Scholars Press, 1994), 95-112쪽.
- Dorsey, D. A.,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Old Testament: A Commentary on Genesis-Malachi*,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1999).
- Dumbrell, W. J., *Covenant & Creation: An Old Testament Covenantal Theology*, (Devon: Paternoster Press, 1984).
- Fensham, F. C., *The Books of Ezra and Nehemiah* (NICOT), (Grand Rapids, Michigan: W. B. Eerdmans Publishing Co., 1982).
- Fishbane, M., "The 'Exodus' Motif/The Paradigm of Historical Renewal," M. Fishbane (ed.), *Text and Texture: Close Reading of Selected Biblical Texts*, (New York: Schocken Books, 1979), 121-140쪽.
- Freedman, D. N., "Pentateuch," *IDB* 3, (Nashville: Abingdon Press 1962), 711-727쪽.  
 \_\_\_\_\_, *The Unity of the Bibl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3).
- Gerstenberger, E., "עָזָב: אֲזָב; עֲזָבוּנִים 'izzehônîm," G. J. Botterweck, H. Ringgren & H-J. Fabry(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X, (Grand Rapids, Michigan: W. B. Eerdmans Publishing Co., 1999), 584-592쪽.
- Hamilton, V. P., *The Book of Genesis 1-17* (NICOT), (Grand Rapids, Michigan: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_\_\_\_\_, *The Book of Genesis 18-50* (NICOT), (Grand Rapids, Michigan: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5).
- Jacob, B., *The First Book of the Bible: Genesis*,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1974).
- Moberly, R. W. L., *Genesis 12-5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 Muilenburg, J., "Abraham and the Nations: Blessing and World History," *Interpretation* 19 (1965), 387-398쪽.
- Phillips, A., "The Book of Ruth-Deception and Shame," *JJS* 37 (1987), 1-17쪽.
- Prinsloo, W. S.,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uth," *VT* 30 (1980), 330-341쪽.
- Rendsburg, G. A., *The Redaction of Genesis*, (Indiana: Eisenbrauns, 1986).
- Sarna, N. M., *Understanding Genesis*, (New York: Schocken Books, 1970).  
 \_\_\_\_\_, *Genesis*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 Sasson, J. M., *Ruth: A New Translation with a Philological Commentary and a Formalist-Folklorist Interpret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1979).
- Teugels, L., "A Strong Woman, Who Can Find? A Study of Characterization in Genesis 24, with Some Perspectives on the General Presentation of Isaac and Rebekah in the Genesis Narratives," *JSOT* 63 (1994), 89-104쪽.
- Throntveit, M. A., *Ezra-Nehemiah* (Interpretati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 Tull, P., "Intertextuality and the Hebrew Scriptures," *Currents in Research: Biblical Studies* 8 (2000), 59-90쪽.
- Van Seters, J., "Confessional Reformulation in the Exilic Period," *VT* 22 (1972), 448-459쪽.
- Von Rad, G., *Genesis: A Comment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72).
- Wenham, G. J., *Genesis 1-15* (WBC), (Waco, Texas: Word Books, 1978).
- \_\_\_\_\_, *Genesis 16-50* (WBC), (Waco, Texas: Word Books, 1994).
- Whybray, R. N., *The Making of the Pentateuch: A Methodological Study* (JSOTSup. 5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7).
- Williamson, H. G. M., *Ezra, Nehemiah* (WBC), (Waco, Texas: Word Books, 1985).

검색어

아브라함

여성 아브라함

리브가

룻

축복

배타성

수용성

투고일: 2008년 10월 10일

심사일: 2008년 11월 7일

게재확정일: 2008년 12월 7일

---

## The Female Abrahams

---

**Jae-Gu Kim**

Lecturer at Hyup Sung University  
University of Toronto Ph. D.

This paper is intended to find out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Abraham's faith, the contributions of his faith throughout Israel's history, and the reflections of his faith on the people after him, especially, on women. And it wants to reveal the history formed by the voice of the faith of the women who possess the Abrahamic images. For this research, one of the literary approaches, the so-called 'intertextuality', is employed by which the close relations of the crucial expressions appearing both in Abraham's story and in the two women's stories are compared in word and theme.

Abraham's faith is not just for himself. His faith must be alive in the lives of his descendants. Especially, as a response of God's order, the absolute faith of Abraham which, without a murmur, leaves his country, people and father's household and goes to the land where he has never been before paves the way to give a right identity to his kinsmen and a new identity to the pagans. Now the people who actualize the same faith of Abraham deserve the epithet 'a new Abraham' without regard to men

or women, and Jews or pagans.

Rebekah never falls short of receiving the epithet 'the first female Abraham.' Since Rebekah is one of Abraham's kinswomen, she emphatically proclaims through her Abrahamic life toward other kinswomen that to enjoy God's blessings they need to leave their parents and relatives. And they should unite themselves with the people of God in the Promised Land.

The life of Ruth means to other pagan women what it is like having the Israelite identity. That means abandoning their own gods and parents, and forgetting their own lands. Now the God of Israel becomes their own God and the people of Israel become their own people. Those who execute these acts are to be reborn as a new Israelite and to be called 'a female Abraham.' And through them, the Abrahamic blessings will come true in their household and, furthermore, they may change the fate of Israel by building the (Davidic) dynasty.

These comparisons clearly proclaim the fact that Rebekah and Ruth can co-exist in spite of their ethnic differences. And through this research, it is contended that in the post-exilic period, Israel did not always demand the ethnic-religious exclusivism, but open the door for the possibility of inclusivism toward those who have the Abrahamic faith.

#### **Keywords**

Abraham  
blessing  
exclusivism  
female Abraham  
inclusivism  
Rebekah  
Ruth